

경골결절 합몰술과 경골결절 합몰변위술

이승진¹, 박세일², 김정은, 최우, 김지훈, 최장윤, 이상목, 장광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¹울산 이승진동물병원, ²대구 황금동물의료원

서론: 전방으로 돌출된 경골결절과 이에 따른 활차구에서 슬개골의 불안정성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경골결절을 후방으로 합몰시켜 활차구내에서 슬개골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슬개골 탈구를 방지하였다. 특히 경골결절이 돌출되고 내외측 양방향으로 슬개골 탈구가 이루어지는 개체, 경골결절이 돌출되고 2등급의 내측 탈구가 이루어지나 외측으로도 1등급 탈구가 이루어지는 개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몸무게 3kg의 2년 암컷 푸들과 8kg의 2년된 수컷 슈нау저 교잡종이 내외측 양방향의 슬개골탈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푸들은 내외측 2등급의 슬개골 탈구이었으며 교잡종은 내측 2등급 외측 1등급 탈구이었으며 두 마리에서 촉진과 방사선상에서 경골결절의 현저한 전방 돌출이 촉진되었다. 시술은 경골결절 변위술처럼 경골결절을 분리시킨 후 노출된 하부의 골을 충분히 제거한 후 경골결절을 제위치에 고정시켰으며 외측은 대퇴이두근막을, 내측은 봉공근막을 관절낭에서 분리한 다음 슬개골위에서 서로 봉합하여 슬개골을 활차구에 더 밀착시켜 안정을 증가시켰다. 2등급의 내측 슬개골 탈구를 가진 말티스(몸무게 2.5kg, 2년령, 수)와 요크셔 테리어(1.8kg, 1년령, 수)에서 경골결절 합몰술과 변위술을 동시에 시술하였다.

결과: 경골결절 합몰술을 실시한 2례에서 슬개골 탈구를 성공적으로 교정할 수 있었으며 원위의 대퇴이두근막의 일부를 슬개인대 원위부와 경골결절 내측에 있는 근막과 봉합하여 경골의 내측 회전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경골결절 변위술과 합몰술을 동시에 적용한 2례에서도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특히 2등급의 내측 슬개골 내측 탈구와 1등급 정도의 외측 탈구를 동시에 가지는 슬개골의 이완이 심한 개체에서 효과적인 시술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임상적 의의: 기존의 경골결절 변위술에서는 사두근 슬개골과 경골결절에 이어지는 선을 일직선상으로 배열시키기 위해 수평적인 측면으로 경골결절을 배열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경골결절 합몰술은 활차구에 슬개골을 밀착시키는 수직적인 배열에 주안점을 둔 시술법이며 특히 같은 슬관절에서 내외측 양방향 탈구를 동시에 가지는 개체에서 기존에는 발표되지 않은 효과적인 시술법으로 1,2등급의 슬개골 탈구에서는 변위술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슬개골 탈구 교정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Corresponding author: khojang@knu.ac.kr